

#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톡톡' 정부, 2단계 공사 서둘러야

리뷰 2015 ③ 호남선 KTX 개통

### 4월 개통 후 이용객 44% 증가...증편 급선무 무안공항 경유 송정~목포 완공돼야 '제 기능' 쇼핑·의료 수준 향상...지역 자본 유출 막아야

호남에도 'KTX(고속철도) 시대'가 본격 열렸다. 지난 4월1일 개통 이후 호남선 철도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만명 이상 늘었다. 예상보다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의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교통지형의 변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지각 변동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건설 취지에 비추었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의 수요예측 잘못에 따라 매진이 잦다. 그만큼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의미다. 수요에 맞는 증편 등이 필요하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호남선 총복오승~광주송정 구간이 고속철도화 된 4월2일 이후 12월 14일까지 호남선 이용객은 404만8288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선로를 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0만5691명보다 124만2597명(44.3%)이 늘어난 수치다.

광주송정역이 281만3147명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 이어 목포역 91만9087명, 나주역 31만6000명, 광주역 42명, 장성역 12명 순이다. 광주송정역은 전년동기대비 327.2%, 목포역은 121.6%, 나주역은 270.

8% 각각 증가했다. 전남의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도 호남선 개통 이후 매달 75만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태와 경관이 뛰어난 광주~전남 지역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KTX가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빠르고 편안한 KTX를 타고 수도권 백화점과 병원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 이른바 '빨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KTX 개통 이후 호남선을 이용해 광주~전남에서 수도권 등지로 '나간' 철도 승객은 205만5226명이었다. 반면 광주~전남에서 '내린' 승객은 199만3062명으로, 6만2164명의 차이가 난다.

고속철 개통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호남선 승차 인원은 140만4825명, 하차 인원은 140만866명으로, 그 격차는 3959명이었다. 개통 후 7개월여간 6만명에 달하는 승객이 타 지역으로 더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이 출장이나 쇼핑, 원정 의료, 친인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과거보다 더 자주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완석 광주대(도시교통 전공) 교수는 "고속철 개통으로 쇼핑이나 원정의료 등을 위한 수도권 이동 수요가 늘고, 고속철로 상경한 승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귀가하면서 벗어선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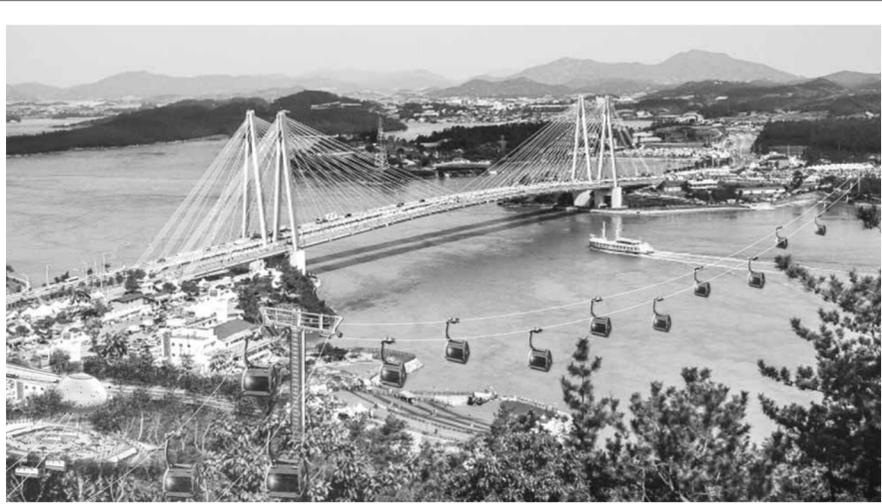
대형 면세점 유치, 의료 수준 향상 등에 힘쓰지 않으면 지역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부작용을 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호남고속철이 제 모습을 갖추려면 아직 일반선로로 연결돼 있는 송정역~목포구간 2단계 완공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2단계 구간에 나주역을 넣기로 했지만, 지역민이 바라는 무안공항 경유는 예산 부담을 내세워 나중에 협의하자며 일버무리고 있다. 무안공항이 빠지면 국가 중요 물류 인프라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 균형발전의 '견인차'로서 호남고속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앞서야 한다. 정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을 서두르고, 자치단체는 KTX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역세권 개발, 거점 역의 복합 환승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 남도 음식 브랜드화, 농촌체험과 힐링 프로그램, 지역축제-KTX 결합상품 개발 등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결합한 6차산업 활성화와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도 KTX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명랑대첩' 울돌목에 케이블카 들어선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 현장인 울돌목에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선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18년 개통이 목표다. <조감도>

### 해남·진도·(주)울돌목 MOU 988m 길이 2018년 개통

이동진 진도군수와 박철환 해남군수, (주)울돌목 관계자는 15일 진도군청에서 진도와 해남 사이 울돌목 해상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울돌목이 300억 원을 투입, 내년 상반기에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건설에 착수하고 2017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케이블카는 시업 운영 등을 거쳐 2018년 초 개통된다.

해남군과 진도군은 울돌목 케이블카 설치로 해남~진도간 패키지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은 물론 명랑대첩지인 울돌목을 서남권 관광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사이의 협수로인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곳으로 평균 유속이 10노트(시속 20km)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거세고 빠른 바다로 알려져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전남 석유화학·철강·조선 '제2도약' 이끌자"

### 도 '주력산업 활력추진단' 전략회의 개최

### 총생산액 119조...도내 제조업 총생산액의 94% 한·중 FTA 대응 방안 등 新성장동력 발굴 논의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전남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주력산업의 제2도약을 위해 '주력산업 활력추진단'을 결성하고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들 주력산업의 총생산액은 119조원으로 도내 제조업 총생산액 126조원의 94%를 차지할만큼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 공급과잉, 유가 하락, 중국의 경기 정체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신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15일 대학 교수, 연구소, 기

하고 대응한다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욱 철강협회 전문위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 같은 국제적 가치사슬(밸류체인) 활성화 효과 등 크게 세 분야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주력산업 활력추진단이 한·중 FTA 공식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국제 전문가와 함께 FTA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산업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진행,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3월 주력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해 자문위원 검증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1면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에서 계속

전남에서는 박성만 전 국정원 직원과 한영배 법무사, 조상기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배종오 전 KBS특파원, 유선호 전 국회의원 등 5명이 목포 선거구에 등록을 마쳤다.

김성근 의원이 호남 불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된 여수시갑에는 신정일 치과의사·송대수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이용주 변호사·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등 4명이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여수시을에서 박종수 중원대 교수·이광진 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위원회 집행위원, 순천·곡성 선거구는 김선일 순천대 겸임교수, 노관규 전 순천시장, 박상욱 전남교육미래위원이 등록을 마쳤다.

나주시·화순군에서는 노정재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한승태 효성요양병원 대표

가, 광양시·구례군에서 안준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김현욱 민주당 김민석 의장 정책특보·김광영 전 광주대 교수가 등록했다.

해남·완도군에서는 윤재갑 전 해군 군수사령관·윤영일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무안·신안군에서 백재욱 전 백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각각 등록을 했다.

정당은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1명이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잇따른 호남발(發) 신당 창당 탓인지 무소속 후보들의 비중이 높았다.

등록인원이 예상에 못미친 것은 대다수 입지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과 신당 통합 추이 등을 광망하느라 등록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국인 40% 술에 '취약' 의료진 "몸 빨개지면 급주"

한국인의 40%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료진의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강보승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5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인의 약 40%는 소량의 음주에도 안면홍조, 메스꺼움, 졸음 등의 특이적인 생리반응을 나타낸다"면서 "이는 서양인과 확연히 다른 특징으로, 술을 조금만 마셔도 몸이 빨개지고 힘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소량의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런 주장의 글(letter)을 미국 신경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글은 하루에 3~4잔 이내로 소주를 마시는 남성은 뇌졸중(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팀의 연구 논문에 반박하기 위해 쓴 것이다. /연형뉴스

당신의 굉장! 젊음의 굉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F

##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 세일신용정보(주)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색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